

교육전문잡지 | 2018년 봄호 | 제 142호

발행인 : Rosa Chang | 편집인 : Sam Yoon

아침햇살

2018 SPRING

한미특수교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p. 2
로사 장 칼럼	자폐증 인식의 달을 맞이하며	p. 3
	한미특수교육센터 소식	p. 4
행사 리포트	세계 자폐 인식의 날 기념 골프대회를 마치고	p. 5
Parenting 정보	의학적 진단과 특수교육자격 결정	p. 6-8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영화 이벤트 Review	한인발달장애센터 (KDDC) 주최	p. 9
	영화 이벤트에 다녀와서...	
캠프 정보	Summer Camp for All Abilities	p. 10-12
	후원해 주신 분들과 단체	p. 13

한미특수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2000년 특수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개인과 개인 사업자, 기업 및 자선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인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 유치원이나 교회, 한글학교 등의 선생님을 위한 최신 특수교육 및 치료정보 워크숍과 심포지움 주최
- 특수학교와 장애 관련 프로그램 정보 및 자료 제공
- 특수교육 관련 법률 의료 서비스 및 사회복지 정보 안내
- 매스컴을 통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행사 주최
- 장애 및 치료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무료 계간지 “아침햇살” 발간 등

※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특수교육 서비스에 관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자폐증 인식의 달을 맞이하며

Rosa Chang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2018년이 시작되나 싶더니 어느덧 벚꽃 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올해 새로 문을 연 LA 사무실의 오픈 하우스를 시작으로, 거북이 마라톤 참가, 새롭게 출발한 Irvine 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Fullerton 댄스 교실, 장애학생의 교육 권리와 IEP 정보에 대해 배우는 Tiger Training, 오렌지 카운티의 자폐증 인식의 날 선언식, 그리고 엇그제 마친 자선골프대회에 이르기까지 숨차게 달려온 지난 세 달을 돌이켜 봅니다.

4월 2일은 UN이 정한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이고, 4월 한달은 ‘자폐증 인식의 달’입니다. 자폐증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의하면 45명 중 1명이 자폐성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폐증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치료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하고 효과도 훨씬 좋기 때문에 이를 커뮤니티에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마다 이 맘 때가 되면 센터에서는 자폐 인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우리 센터가 요청을 하여, 오렌지 카운티 전체에 이 날을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한인을 대표한 우리 센터를 비롯해서, 자폐증과 발달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히스패닉, 베트남, 중국, 일본 등 5개 단체들이 초청을 받고 선언문을 전달 받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4월 2일을 기념하며 열린 “발달장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자선 골프 대회”는 자폐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학생들과 댄스 교실 학생들이 특별 공연을 하며 그 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매 주 모여서 연습하며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님들은 물론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착석도 어려웠던 아

이들이 어젠 제법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서 악보를 훑어 쳐라 쳐다보며 열심히 악기 연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 센터에 왔던 그 아이가 맞는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문제와 장애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가 가진 관심이 무엇이며 무엇을 할 때 행복해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기회를 제공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은 학교 교실과 치료실에서는 다 배울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체득하게 됩니다.

2000년 한인 장애 아동과 성인들 그리고 그 가족을 돕고자 센터를 시작한 이후, 4월 2일 하루, 4월 한달 동안만이 아니라 18년간을 커뮤니티에 자폐와 발달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일깨우고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힘써 노력해왔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결실이 보입니다. 이번 골프대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을 다룬 신문과 TV, 라디오 방송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를 잘 담아 주셨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 후원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자폐증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있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가 협력하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동등하게 어우러져 사는 세상, 더 이상은 자폐증 인식의 날이나 달이 필요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며, 우리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그 세상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고 싶습니다.

올 해도 내가 좋아하는 벚꽃 구경은 못하고 지나가겠지만, 무대 위에서 벚꽃보다 더 예쁘게 빛나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제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시작합니다. ‘벚꽃 엔딩’ 노래를 들으며...

1 1월 20일 토요일. JJ Grand Hotel에서 센터의 이 사님들과 자문위원님들, 선생님과 스텝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한해를 계획하며 센터의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1월 27일 토요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우리 센터 학생들과 봉사자 그리고 사랑의빛선교교회 학생들, 선생님들이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며 Griffith 공원 산책로 약 2마일을 걸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남가주동문회(회장,도성환)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고없이 잘 걸을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었습니다.

3 2월 2일 금요일. 엘에이 사무실을 오픈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인사회의 대표적 비영리 기관인 Kheir Center 에린박 소장님, KFAM 카니정 소장님, KYCC 송정호 관장님 등 같은 건물의 식구들께서 모두 오셔서 축하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찾아와 주셔서 축하와 격려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2월 24일 토요일. 미주한국학교연합회 교장 총회 및 세미나에서 '찾아가는 세미나'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의 일환으로 이화벽 선생님이 '주의산만한 아동의 지도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셨습니다.

5 3월 3일 토요일. NOAH Fund의 후원을 받아 '자폐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것만이 내 세상' 무료 영화상영 이벤트를 하였습니다. (기사 9Page)

6 3월 16일 금요일. UCLA 자폐증센터 Center for Autism Research & Treatment (CART)와 지역사회 모임들이 합동하여 개최한 부모님들을 위한 무료 컨퍼런스에 우리 센터도 참여하였습니다. Resource Booth를 설치하고 많은 한인부모님들과 타민족 자폐관련 단체와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7 3월 21일 월요일. 한국 국립특수교육원의 김은숙 원장님께서 국내 장애학생을 위한 국가단위 보조공학지원 체제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CSUN 2018 행사에 참가하시는 길에, 우리 센터와 '얼바인 통합농구교실'을 방문하시고 어머님들과 간담회를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특수교육에 관한 최신 소식들과 이곳 부모님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8 3월 27일 화요일. 샌타애나 카운티청사에서 열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미셸 스틸을 포함한 수퍼바이저들이 4월 2일을 자폐증 인식의 날로 선포한 후, 우리 센터를 포함한 6개 관련 단체에 표창을 하였습니다.

9 4월 2일 월요일. UN이 정한 'World Autism Awareness Day'를 맞이하여, 커뮤니티에 자폐 등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이어 두번째 골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사 5page)

10 Let's Dance!!! KASEC Stars 클래스가 2월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풀러튼 커뮤니티센터에서 5세에서 12세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4:30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11 작년 풀러튼에 이어 얼바인에서도 Harmonia Orchestra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얼바인 베델교회에서 4시 30분부터 6시까지 모입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2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통합농구교실'이 2월부터 풀러튼과 얼바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풀러튼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총 47명의 학생들이, 그리고 얼바인에서는 매주 월요일 2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폐 인식의 날 기념 골프대회를 마치고

세계 자폐 인식의 날 (4월 2일)의 의미를 커뮤니티에 더 알리기 위해, 서울메디칼그룹 (회장 차민영)이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해주신 “발달장애 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가 4월 2일 부에나팍에 위치한 로스코요테스 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작년 제1회 대회보다 약 20여 분이 더 많은 162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20명의 봉사자가 새벽부터 열심히 땀을 흘리며 행사 진행을 도왔습니다. 특히 이날은 대한민국 테니스의 레전드인 이형택 선수, 유튜브 밀리언 뷰어를 가진 명품스윙 에이미 조 티칭프로가 참가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준비위원장이시며 우리 센터 이사이신 존 김 박사 (세리토스 메디칼 센터 원장)는 “작년에 이어 올해 더 많은 분이 골프대회에 참가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덕분에 자폐 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더욱 개선되어 가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서울메디칼그룹과 남가주 한인 의사협회 (회장:조만철), 그리고 많은 한인 기업들의 후원이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

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센터의 이사님들과 스태프 그리고 선생님들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자폐성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리고, 자폐증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올해도 조성된 기금을 통해 자폐증을 가진 학생과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고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개발하여, 도움을 주신 한인들의 좋은 뜻을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었습니다.

골프대회 후에 있었던 저녁 만찬은 그 어떤 골프 모임보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약 250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작년 골프대회의 후원을 통해 시작된 플러튼과 얼바인의 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플러튼 댄스클라스 학생들의 댄스 공연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무대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을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며, 학생들과 부모님들께는 하나의 멋진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의학적 진단과 특수교육자격 결정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의료 기관에서 내리는 진단과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자격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의학적 진단 (Medical Diagnosis)과 특수교육 자격(Special Education Eligibility)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누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즉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특별하게 설계된 수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의학적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여건상 의학적 진단을 받지 못했다 하여 특수교육 서비스를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자격은 연방 장애인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아래 13개의 장애 항목 중 반드시 해당되는 장애가 있어야 한다:

자폐, 시청각 장애, 청각 상실, 정서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복합 장애, 정형외과 장애, 기타 건강 장애, 특정 학습 장애, 발화 또는 언어 장애, 외상성 뇌손상, 시각 장애

2) 특수 요구나 장애로 인하여, 일반 학급 프로그램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특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해야 한다.

요즘 ADHD 진단을 받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은 기타 건강 장애나 특정 학습 장애에 주로 속합니다. 장애 진단명이 있더라도 두 번째 조건 또한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가능한 학생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와 관련된 의학 시스템과 공교육 시스템 -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사용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가령, 학교에서 특수교육 검사를 통해 자녀가 자폐에 해당되는 장애의 특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받았다면, 이 경우 자녀가 자폐 ‘진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학교는 의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자폐의 특성을 보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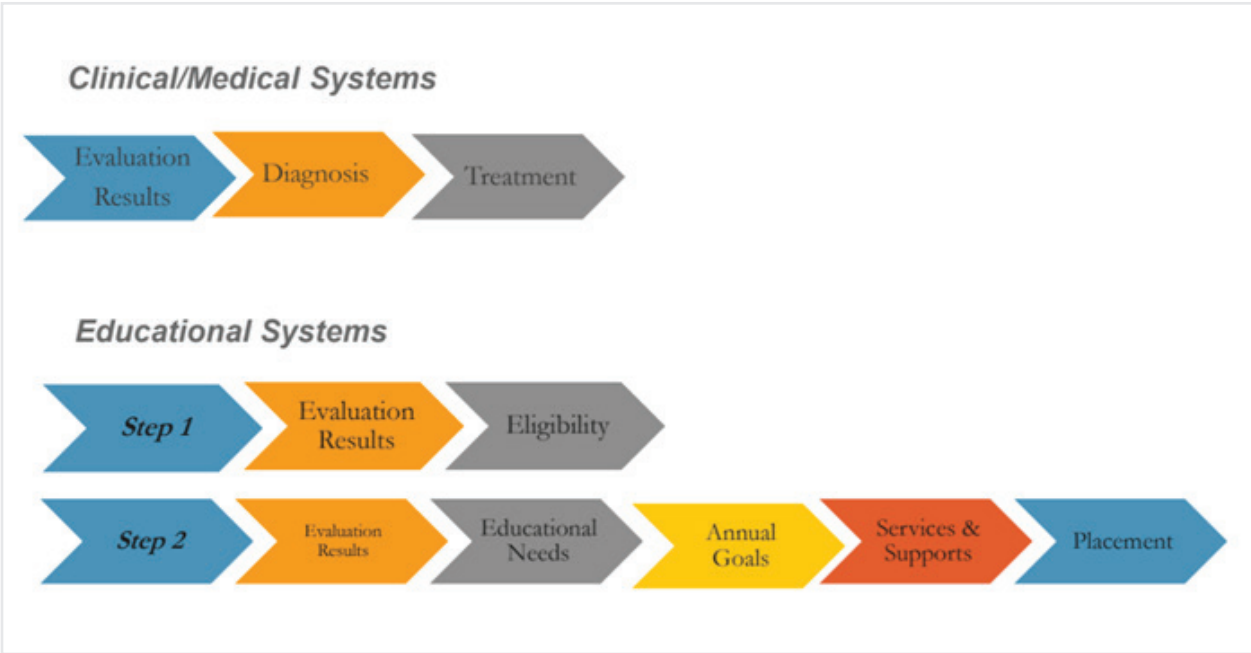
장애가 있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특수교육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역할은 학생이 지닌 장애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이를 교육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진단 (diagnosis)’이라는 의학 용어 대신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자격 (eligibility)’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검사의 목적이 다릅니다!

의학적인 검사의 목적은 장애를 진단 (diagnosis)하여 치료 (treatment)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교육 현장에서 검사의 목적은 첫째,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eligibility)이 되는지 판단하고 둘째, 교육적 필요를 파악하여 연간 목표 설정, 서비스 및 지원 제공, 학급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검사자가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상 / 신경심리학자, 소아과 의사, 신경과 전문의,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행동치료사.

학교에서 검사를 실행할 때에는 학생의 장애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 (학교 심리학자,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학교 간호사, 특수 체육교사,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 행동치료사)가 한 팀을 이루어 검사합니다.

네 번째. 검사 도구가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 / 발달 / 의료 기록의 검토, 관찰, 검사지, 인터뷰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의학적 진단은 정신건강과 발달 장애를 진단하는 지침서인 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5와 제 질병분류지침 ICD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10을 근거로 합니다.

	의학적 진단 (Clinical Diagnosis)	특수교육 자격 결정 (Special Education Eligibility)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진단 ● 가정이나 교육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계획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함. ● 장애로 인한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킬 IEP를 위해 데이터 수집
기준	DSM-5, ICD-10의 기준을 바탕으로 진단	IDEA의 특수교육 자격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
결과	진단에 맞는 개별적 치료 * 의학적 진단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이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학교 기반 특수교육 서비스

이처럼 장애에 대한 의학적인 진단과 학교의 접근에는 여러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학적 진단과 처방만으로, 또는 특수교육 서비스만으로 장애를 가진 개인을 치료하거나 교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의료진들은 학생들이 하루 중 1/3에 달하는 시간을 보내는 배움의 장소인 학교를 통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자들은 장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어떻게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의학적인 진단에 사용되는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부 검사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두 가지 접근을 잘 통합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의 삶에 더 좋은 치료 및 교육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The Center for Autism &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자폐 컨퍼런스 (2017년 9월)
[요약 정리 : 아침햇살]

한인발달장애센터(KDDC) 주최 영화 이벤트에 다녀와서...

지난 3월 3일 한인발달장애센터 (KDDC)의 개설을 기념하여 ‘그것만이 내 세상’ 무료영화상영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2018년 한미특수교육센터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한인발달장애센터(KDDC)는 발달장애 인식개선과 정보 제공, Fundraising,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젝트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달장애센터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기 위한 본 행사에 100여분의 관객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여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3월 초 어느날, 지인의 소개로 한인발달장애센터에서 주최하는 영화 이벤트에 가족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영화를 즐겨하지 않는지라 아이들에게 가족이 주말에 뭔가를 함께 한다는것에 의미를 가지며 기대없이 극장에 들어서고 영화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는데, 영화 상영에 앞서 간단하게 한미특수교육센터와 한인발달장애센터에 대한 소개를 듣고 영상을 보며, 평소에 주위에서 만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활동들을 알게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저의 아이들의 생각을 참 대견스럽게 다가왔고, 영화를 보며 주인공이 가진 자폐증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저의 무지함이 미안함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내 주변에서 볼 수 없고 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관심도 없었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영화와 센터의 소개를 직접 보고 들으며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다음엔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엔 행동의 변화도 시작될 것이고, 이처럼 한사람 한사람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장애를 바라보는 비뚤어진 시선이 사라질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사실 한미 특수교육센터는 저에게 참 고마운 곳입니다. 2010년 저의 둘째 아이가 만 4세가 되어가는데 말이 어눌하고 대화가 잘 안되어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모르고, 또 이민가정이라 집에서는 한국말만 사용하던때라 아이가 school district에서 하는 speech therapy는 영어를 몰라 받을 수도 없어서 고민하던 때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5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을 통해 아이가 대화에 문제없이 성장하게 되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린 관객)

AMC Sensory Friendly Films



▶ 매월 둘째, 넷째 주.

AMC영화관에서는 Autism Society와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특별한 영화상영 시간이 있습니다. 조명과 볼륨을 낮추고, 상영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춤을 추거나 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불러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 매월 2, 4주 토요일 : family-friendly, 화요일 저녁 : 성인
- 영화상영시간은 각 AMC극장의 시간표를 참고하세요.

Summer Camp

Summer Camp for All Abilities

이제 곧 다가올 여름방학.

여름방학이면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Summer camp에 참여합니다. 새로운 만남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시간이니깐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 역시 Summer camp를 통해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놀이와 학습에 참여하면서 값진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알찬 Summer Camp를 찾아봤습니다.

Kids Like Me Camp

www.kidslikemela.org

Village Glen Day Camp

3-13세의 고기능 자폐, ADHD, extreme shyness 등의 이슈를 가진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 Day camp (9am-2:30pm)로, Culver city와 Sherman Oaks에서 열린다. 미술, 드라마, 음악, 물놀이, 스포츠, 게임, 필드트립 등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전문 치료사와 카운슬러들이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Camp sunshine

3-21세의 중등도 / 중도 자폐 (moderate / severe autism) 아동들을 위해 발달 수준에 맞는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증진하고 일상생활기술을 연습하도록 돕는다.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은 1:3이며, 필요할 경우 일대일 보조를 제공한다 (추가비용)

Teens on the Go & Teens on the Go Travel Camp

발달장애를 가진 10대 청소년들 (13-17세)이 독립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커뮤니티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캠프. LA 및 OC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당일여행 (Daily camp, 9:00am-3:00pm)과 6-day travel camp (San Francisco 또는 California Coast)가 있다. 집을 떠나서 음식, 옷, 위생 등 자신의 일상생활과 공간에 책임을 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2018 남가주 밀알 사랑의 캠프 (Camp Agape)

발달장애청소년, 중증재가장애인 및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 진행된다. 2018년 여름에는 “Tough Buddies : Reach to the summit” 를 주제로 6월 28-30 일까지 CSU Long Beach에서 열린다.

www.milalmission.com/lovecamp

Whispering Winds – Special needs Family Camp

“Special kids and their families deserve a special weekend!” Whispering Winds는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27년간 특수아동의 가족들을 위해 2박3일간의 주말 캠프를 제공해왔다. 부모와 비장애 형제자매들이 캠프의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고 휴식의 시간을 갖는 동안 장애아동들이 special needs buddy와 함께 각종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온 가족이 휴식과 추억의 시간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순서도 마련된다. 2018년에는 7월 20-22일에 진행되며, 35가정까지 참여할 수 있다.

www.whisperingwinds.org

Camp Nugget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하기 원하는 아이들을 위한 캠프. CSU Long Beach의 Adaptive Physical Education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며, 5-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한 4 week Half-day 프로그램이다 (M-F 9-12:00). 학생 대 교사 비율은 4:1. 운동 능력, 사회적 기술, 자존감 향상 및 또래와 즐거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령별 그룹에서 다양한 게임과 활동, relaxation 및 구조화된 수영레슨이 이루어진다. 부모님들께 daily feedback을 제공하는 Behavior-management program 운영. 기간은 2018. 6. 18-7.13

www.csulb.edu/campnugget

Camp Escapades

5-14세의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Day camp (9:30am-3:30pm). Pediatric Therapy Network에서 운영하며, 장소는 Rolling Hills Country Day School.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보조교사 및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며, 대소근육 발달을 위한 댄스, 스포츠, arts&craft, 요가, 음악, 요리를 비롯해 감각발달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아동의 형제자매도 함께 참여 가능. 기간은 2018. 8. 6-10, 13-17 (2주)

<http://www.pediatrictherapynetwork.org>

AbilityFirst Camp Paivika

1947년부터 운영해 온 fully accessible camp. 대상은 9세부터 성인까지의 경도-중도 발달장애 및 신체장애인이며 캠프장은 San Bernadino National Forest에 있다. 야외활동, 목욕, 식사, 옷입기 등과 같은 개인 돌봄을 전적으로 제공하며, 50명의 스태프와 봉사자들이 60명의 캠퍼들을 케어함으로써, 댄스, arts&craft, 음악, 수영, 캠프 파이어 등 모든 캠프 활동에 장애와 상관없이 100%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https://www.camppaivika.org/>

UC Irvine Child Development Summer Enrichment Program

1-5학년 ADHD 또는 ASD 아동과 형제자매들을 대상으로, ABA전문가와 임상심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Social skills, Summer Olympics, Literature to Life, S.T.E.A.M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9:00am-1:00pm)
Session 1 : 7/2-7/20, Session 2 : 7/23-8/10
캠프 시간 이후에 (1-4pm) 개별 혹은 소그룹으로 1시간 짜리 Academic Support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캠프와 별도로 Academic Support에만 참여할 수도 있다.

<http://cdc.uci.edu/summer-program/>

Camp JPAC (Joe Patton Academy)

5-16세 장애아동과 형제자매들을 위한 무료 통합데이캠프 (Inclusion day camp). 스포츠, 미술, 수영, 풋볼, 볼링, 드라마, 댄스 및 Academic enrichment program이 진행되며, 학생 대 교사 비율은 1:4 (행동치료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등). 4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한편 Camp JPAC에서는 ASD를 가진 14-24세 청년들을 캠프 카운슬러로 고용함으로써 직업경험과 커뮤니티 적응 및 라이프스킬 트레이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http://snnla.org/>



후원해 주신 분들

2018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개인

Bella Shim, Choi Family, Kyung M Kim, Stella Gee, Lisa Yi, Sarah Woo, Teresa Cho, Virginia Moon, Youngjin Song, 공보미, 김소영, 김신규, 김장원, 김재종, 김효정, 김현숙, 방하섭, 박명숙, 박수정, 박지경, 백현숙, 송해숙, 오영환, 육재민, 윤현경, 윤현숙, 이은영, 양선주, 조명신, 정옥점, 최동숙

단체

Apark Accountancy Inc, Dough City Corporation, NewYork Life, New Covenant southern Baptist Church, San Pedro Wholesale Mart Charity Organization, 미주서부교회, 하심교회

“제2회 발달장애 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 를 통해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후원안내

01

온라인을 통한 후원

www.kasecca.org
에 가셔서
원하시는 금액을
Credit Card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Paypal 계정을 통해
안전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

우편을 통한 후원

아래의 센터 주소로
Check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Payable to KASEC

03

Amazon 쇼핑을
통한 후원

Amazon으로
쇼핑하실때
Smile.amazon.com
을 통해 들어가셔서
'pick your own charitable
organization'에서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를 선택하시면
총 구매금액의
일부가 우리 센터로
기부가 됩니다.

04

은행을 통한 후원

후원자님의 은행에
저희 센터의
은행 인포메이션을
주시면 됩니다.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Bank Name :
Open Bank
ABA Number :
122043958
Account Number :
04200218

※ 저희 센터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AX ID 20-1635852)

Since 1992

STEVEN C. KIM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STEVEN C. KIM

ATTORNEY AT LAW

The Wilshire Colonnade

3701 Wilshire Blvd., Suite 1040
Los Angeles, CA 90010

(213) 365-7007

Fax (213) 365-7001
stevenckim@sbcglobal.net



Christina Kwon
Realtor

Direct : **(714) 504-6767**

Office : (714) 451-1700

Fax : (714) 451-1720

christinakwon@socalbest.com

BEST REALTY



413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Each Office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그래! 역시! 모든 보험은

천하보험



천하보험

CHUN-HA INSURANCE SERVICES, INC.
A Subsidiary of CHUNHA Holding Corp.

Solution for Tomorrow



CEO **David Chul S. Yang**

대표 **양철승**

david@laservisionworld.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 323.730.5050 F 323.731.1313 C 323.383.3723



Kyu Bum Han

Lic. # 0B55520

**GLOPAX FINANCIAL
& INSURANCE SERVICES**

Insurance & Financial Planning

7740 Painter Ave., Suite 206 Whittier, CA 90602
Phone : **(562) 945-2670** Fax : (562) 945-2680
info@iglopax.com

PARIS BAGUETTE

*Cerritos
Branch*

17416 Carmenita Rd.
Cerritos, CA 90703
Tel. 562.404.0440

제 2회 '자폐인의 날 기념' 자선 골프대회 타이틀 스폰서



최고 점수! 최고 메디칼 그룹

메디케어, HMO 건강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전문의 허가 (Referral)가 아주 빠른

서울메디칼그룹을 택하시고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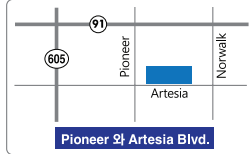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1-800-611-9862 / 213-389-0077
http://seoulmedicalgroup.com

진료 과목

- 일반내과(고혈압, 당뇨병)
- 소아과(예방주사, 신체검사)
- 부인과(PAP Smear, 유방암 검사)
- 외과, 피부 비뇨기과
- 종합 건강 진단과 진찰(Physicals)
- 직장사고, 교통사고
- 응급치료(Urgent Care)
- 알러지 검사 및 치료
- 각종 피검사
- X-Ray 검사, 초음파, 심전도
- 위, 장 내시경 및 조직검사
- 레이저 치료
- 골다공증



각종보험 / 메디케어

진료 시간
월-금: 8:30AM~6PM
토: 8:30AM~1: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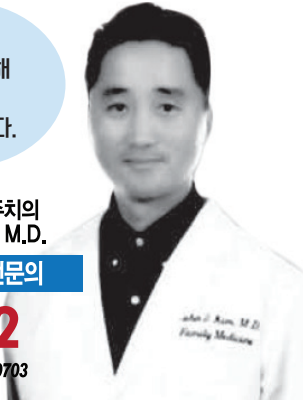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김신근 가정 주치의
John S. Kim, M.D.

미국 보드 전문의

562.402.7622

11911 Artesia Blvd. Suite #101 Cerritos, CA 90703



TranStar Transportation, INC.
Jay Shin, President

Truck Load, Less Than Truck Load and Transportation Service

- Truck Load to Northern California, UT, CO, AZ, NV, TX, etc
- LTL (Less Truck Load) Service in California
- 53ft Trailer & 26ft Bobtail Trucks available

Tel : (310) 534-0113

Mobile : (310) 800-8510

Fax : (310) 534-0116

Email : TranStar.inc@gmail.com

24328 S.Vermont Ave. suite #355, Harbor City, CA90710

LAW OFFICE OF JENNIFER S. CHANG

JENNIFER S. CHANG, ESQ

5900 WILSHIRE BOULEVARD
SUITE 2250
LOS ANGELES, CA 90036

JENNIFER@JENCHANGLAW.COM
TEL (323)931-5270
FAX (213) 896-7050

“ 제니퍼 장 변호사는
따돌림, 정학, 퇴학같은
학교 생활 문제부터
특수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사안까지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교육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



WWW.EDUCATIONRIGHTSATTORNEY.COM
WWW.JENCHANGLAW.COM

The Original Korea Brand

Taste of Korea



wang GLOBALNET

<http://www.wangfood.com>



한미특수교육센터 운영진 및 Staff 소개

Board Members

이사장 : 양한나

실행이사 : 한규삼 (서울, 충현교회 담임목사), John Kim (세리토스 메디컬 센터 병원장)

조제원 (가톨릭대학교 의생명 융합 연구원 부원장), Christina Kwon (Realtor, Coldwell Banker)

강승현 (Wang Globalnet 대표), Roy Cho (Angeles Contractor, Inc. 마케팅대표)

Karen Moon (Former VP of HR and Corporate Services, Hyundai Capital America)

Advisory Board Members

이시연 박사 (Cal State LA 사회복지학과 교수)

Susan Chung 박사 (Kaiser 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송혜경 박사 (Cal State Fullerton, 의사소통장애학과 교수)

정우식 박사 (Cal State Fullerton, 특수교육학과 교수)

박랑규 박사 (아이코리아 아동발달교육연구원 원장)

Jennifer Chang (특수교육법 변호사)

Executive Director

Rosa Chang, M. Ed.

Clinical Director

Hyun S. Park, M.D in Developmental Pediatrics

Therapists & Teachers

Speech Therapy

Esther Lee (CCC-SLP, M.A. in Speech-Language Path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Michelle Park (SLP-A, B.A in English Literature, UCSD)

Special Education & ADHD Consultation

Hwa Byuck Lee (M.A. in Special Education, CSUF, 현재 Los Cerritos School RSP Teacher)

Special Music Program/Harmonia Music Program

Heesoon Jeon (M.A. in Music 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uhnyoung Yoon (M.A, Yale University School of Music)

Adapted Physical Education Program/Unified Basketball Program

Kevin Ma (M.A. in Education, CSUDH, APE Credential in CSUN, 현 LAUSD APE Specialist)

Sang Nam (Professional Basketball Coach)

Dance Program

Zion Lee (Teacher)

Community Outreach Manager

Sam Yoon

Community Outreach Specialist

Rachel Lee

Administration Officer

Seon Young Hong